한국폴리텍대학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12:00 (2026. 11. 11.(수) 조간)

한국폴리텍대학, 산업이 원하는 학과를 먼저 만든다.

- 최근 4년간 125개 학과 신설·개편…산업 수요 맞춘 학과 설계 결실
- 첫 졸업생 취업률 100%부터 입학 첫해 채용 확정까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노동시장 변화와 기술 전환에 선제적으로 학과를 신설·개편**하여 성과를 속속 내놓고 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학과는 입학 1년도 되지 않아 채용을 확정** 짓고, **첫 졸업생 배출하는 학과는 전원 취업·진학에 성공**하는 등 산업 수요를 겨냥한 학과 설계가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수요, 기업 의견을 종합해 매년 학과를 새로 만들고 변화해 왔다. **최근 4년간 신설 48개·개편 77개 등 125개 학과가 산업 변화에 맞춰 새 옷**을 입었다. 반도체·산업안전처럼 수요에 대응해 학과를 열고, 기존 학과도 지역 산업 구조에 맞게 꾸준히 손질해 온 결과다.

▶ 첫 졸업생부터 취업률로 증명… 2년 만에 나온 성적표

2024학년도 문을 연 대전캠퍼스 클라우드보안과는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전원이 취업·진학에 성공하며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졸업생들은 한국아이티진흥, 진인프라 등 클라우드 인프라/보안 전문기업과 대학병원 전산실에 진출했고, 일부는 보안 전공을 심화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했다. 지능형 사이버 위협이 늘면서 데이터센터(IDC) 보안을 책임질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와, 국방·공공 연구기관과 IT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충청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같은 해 출범한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도 첫 졸업생 배출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올해 **첫 졸업생 취업률은 90.4%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폴리텍대학 학위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된 산업안전 학과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AI 기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 전공은 울산을 첫 시작으로 2025년 창원캠퍼스에 이어 2027년 서울정수캠퍼스까지 확대돼 **전국 단위 안전 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 시작부터 기업·지역 수요 맞춤형… 신설 첫해에 성과

2026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맞은 성남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는 출범과 동시에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와 채용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재학 중 채용 면접 등을 거쳐 1학년 2학기에 채용을 확정하는 구조다. 그 결과 **올해 9월 군필자 5명은 취업을 확정**하고, **군 미필자 17명은 인재풀에 등재되어 복학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이 확정**된다.

포항캠퍼스 전기과는 철강·이차전지 등 **지역 산업의 전력 수요가 커지며 늘어난 전기설비 인력 수요**에 맞춰 2026년 문을 열었다.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특화과정은 모집 정원 **40명에 119명**이 몰려 3대 1을 웃도는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도 **필기 22명 전원, 실기 19명 중 18명이 합격(94.7%)**해 신설 첫해부터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학과 신설과 개편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가장 먼저 길러내겠다는 약속"**이라며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지역 산업과 호흡하는 학과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기술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관련 사진**



▲ 2024년 문을 연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 학생들이 위험 현장에 선진입하는 4족 보행 안전로봇의 구동 원리와 현장 점검 방식을 배우고 있다.